

제목: 전후대만에서의 탈일본화와 일본관(觀)—한국과의 비교

이름: 모리타 켄지(森田健嗣)

소속: 도쿄대학교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공교무보좌원

전공: 지역문화연구전공(2016년 3월 현재)

필자는 대만에 관한 원고를 쓴 적이 있으나 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한국/조선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본위코숍에 참가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만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 전후 민주화운동의 전개나 경제발전, 그로부터 발생한 사회구조 등,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45년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잔재(殘滓)의 청산'은 일종의 정언(定言) 명령이었고, 최우선시 된 청산의 대상은 일본어로서, 그것이 민족문화건설의 선결과제였다¹.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은 새로운 국민통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한국내셔널리즘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인'을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했다고 한다².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탈일본'이라는 공통의 정언명령하에 국민국가형성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과 관련지으면, 요즘 전후대만이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탈식민지화의 대행'³이라고 파악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만의 탈식민지화가 대만이 대만으로서 자기자신의 아이덴티티나 국가의 형성이라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화민국이 대만을 '중국어화'하는, '대행'(代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위정자에게는 일중전쟁에서 싸운 상대이지만, 대만 사람들에게는 대만을 50년간 통치한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점에서 볼때, 전후대만의 위정자, 그리고 식민지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식민자가 서로 공통적으로 '탈일본화'의 정언명령을 가지기는 힘들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후대만에서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1 金哲(田島哲夫訳)『抵抗と絶望——植民地朝鮮の記憶を問う——(저항과 절망—식민지조선의 기억을 묻다--)』(大月書店、2015년) 205-206 쪽

2 위의 책, 224-225 쪽

3 若林正文「試論 日本植民帝国「脱植民地化」の諸相——戦後日本・東アジア関係史への一視角——(시론 일본식민제국'탈식민지화'의 제상—전후일본·동아시아관계의 하나의 시각--)」黄自進主編『東亜世界中的日本政治社会特徴』(台北、中央研究院人文社会科学研究中心、2008b년) 290 쪽

4 川島真「新時代の日台関係と台湾の日本研究(신시대의 일대관계와 대만의 일본연구)」中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檜山幸夫編『歴史のなかの日本と台湾——東アジアの国際政治と台湾史研究——』(中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2014년) 46 쪽

일이 곤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위크숍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서울기록관, 국사편찬위원회, 외교사료관,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사’로서의 확고한 ‘우리 한국/조선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후대만의 ‘국사’는, 오랫동안 ‘중국사’를 지칭했다. 그 기술(記述)은 정통적인 5,000 년의 유구한 ‘중원’의 역사로서, ‘정통중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일청전쟁이후 ‘국난’을 가져온 최대의 ‘침략자’로서 위치되고, 근대사의 기억은 국민당사관으로 교체되었다. 역사기술 안의 ‘일본’은 침략과 학살을 초래한 8 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항일전쟁의 적이었기 때문이다⁵.

게다가 1950년대부터 국민당중앙정부의 대만이전과 함께 진행된 ‘중양화’⁶ 이후에는 정권 위로부터의 대만사회에 대한 일대 ‘중국화’, ‘중국인이 되기 위해 배운다’(Learning to be Chinese), 즉 본성인(本省人)⁷이 외성인(外省人)⁸ 통치엘리트가 제시하는 주류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됐다⁹. 그리고 국민당정권의 공정한 중국내셔널리즘에 기반해서 위로부터의 국민형성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대만사회 각각의 ‘족군 에스닉 그룹’의 모어(母語)나 ‘대만적인 것’은 국어(중국어)와 중화 하이컬처의 하부로 폄하되었다¹⁰. 더욱이 장기계엄령과 백색테러로 인해 언론과 그 외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전후대만 국민당정권이라고 하는 전전일본과의 ‘대조군’(對照群)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 종종 식민지시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발생하고, 식민지기를 살아온 대만인이 일본시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유인(誘因)이 되었다고 지적해왔다¹¹.

5 洪郁如「理解と和解の間——「親日台湾」と歴史記憶——(이해와 와해의 사이—‘친일대만’과 역사기억--)」『言語文化』50、2013년、24 쪽

6 若林正文『台湾の政治——中華民國台湾化の戦後史——(대만의 정치—중화민국 대만화의 전후사--)] (東京大学出版会、2008a년) 75-76 쪽

7 1945년이전부터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인구상 다수파이며, 민주화로 인해 엔파워먼트(Enpowerment)된 입장에 있다. (위의 책, 3 쪽)

8 1945년이후에 국민당정권과 함께 도래한 사람들로서, 당·정·군·문화기구의 요직을 담당하며 인구상으로 마이너리티이기는 하나, 전후대만국가에 있어서 본성인과 비교하여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위의 책, 3 쪽)

9 위의 책, 78 쪽

10 若林、위의 논문 (2008b년) 289 쪽

11 蔡錦堂 (水口拓寿訳) 「日本統治時代と国民党統治時代に跨って生きた台湾人の日本観(일본통치시대와 국민당통치시대를 걸쳐서 살아온 대만인의

일본관)」五十嵐真子・三尾裕子編『戦後台湾における〈日本〉——植民地経験の連続・変貌・利用——』(風響社、2006년) 29-34 쪽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발달시키는 요소로서 ‘선택된 트라우마’(미래에 그림자를 나타내는 과거의 참사)와 ‘선택되어진 영광’(영광있는 미래에 관한 ‘신화’로서, 과거 영광의 재현으로 이해된다.)의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부모나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아래 세대로 계승되고, 다음 세대는 그 일들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세대가 맞본 고통을 공유하게 된다¹². 전후대만에서는 탈식민지화가 대행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위정자의 역사관, 지리관¹³ 과 적에 대한 인식이 교육되었다. 그리고 식민지대만에서의 기억과 경험은 학교에서는 계승되지 않고 단절되어, 가정내에서조차도 아래 세대에게는 공유되기가 어려웠다¹⁴. 게다가 거리에서는 위정자의 의도로 인해 ‘일본’이 깨끗히 사라지고, 계엄령과 백색테러가 연속되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식민지시대의 피통치자가 탈일본화의 의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것이 자기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

본위크숍에서는 각 기관의 방문을 통해서, 같은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경험한 한국에서는 민주화이전부터 ‘탈일본’이 위정자와 국민에게 정언명령으로서 공유되고, 확고한 ‘국사’로서의 한국/조선 역사가 계승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만은 탈식민지화가 대행되었기 때문에, 대만사회 전체가 구종주국 ‘일본’을 예전의 ‘적’이나, ‘대자화’(他者化)하여 국민통합의 기능으로서 간주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 ‘일본’을 상대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국민대학교에서의 일본연구에 대한 강연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일본연구자가 실증적이고 성실하게 식민지시기에 대항려고 하면,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유포되고있는 일본관(觀)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현대 대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본위크숍을 통해 양자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12 ワン・ジョン (伊藤真訳) 『中国の歴史認識はどう作られたのか(중국의 역사인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東洋經濟新報社、2014년) 76-78 쪽

13 王文隆 「台湾中学地理教科書の祖国想像(대만중학지리교과서적 조국상상) (台湾の中学/高校地理教科書における祖国イメージ(대만의 중학/고교지리교과서에서의 조국이미지)) (1949-1999)」 『国史館學術集刊』 17、2008년、201-246 쪽

14 洪씨가 인용하는 영화(위 논문), 周씨의 회상 (周婉窈著 (若林正文訳) 「二度の「国引き」と台湾——黒住・木宮両氏との対話——(두번의 ‘나라긋기’와 대만—구로즈미씨·기미야씨와의 대화--)」 『ODYSSEUS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地域文化研究専攻紀要』 9、2005년、106 쪽)、藍씨의 연구 (藍適齊 (安部由紀子訳) 「台湾における「大東亜戦争」の記憶一九四三~五三年——当事者の不在——(대만에 있어서의 ‘대동아전쟁’ 기억 1943~53년—당사자의 부재--)」 『軍事史学』 45(4)、2010년、58-59 쪽) 등을 참조.

번역: 도쿄대학교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민동엽